7-2 // 색면회화(Color Field Painting)

30) 마크 로스코 <회색 너머 빛> / 바넷 뉴먼 <누가 빨강, 노랑, 파랑을 두려워하라> // 격렬한 본능적인 자기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액션 페인팅 < 추상표현주의에 속한다. 칼라필드페인팅도 추상 표현주의에 속함.

색면회화 : 평평한 색면을 통해 사색과 명상 요구. 화가의 감정을 정화시키고 절제시키면서 철학적 의미를 회화에 부여. 평평한 색면->색채 굉장히 강조. 색채의 존재를 보여준다. 넓으면 넓을수록 색채의 강도가 깊어진다. 크면 클수록 색채의 강도가 깊어진다. 색면을 통해서 색채의 존재를 물질적으로 알려줌.(색채의 물질성 보여줌).

색면주의는 캔버스 표면에 색을 칠한다. 캔버스의 평평한 표면만이 회화라는 실제이다 (평면성 강조하는 이유). 물감의 물질성 보여줌(붓터치 등). 색면주의는 평평한 캔버스의 표면에 색채를 입힘으로써 평면성과 물질성을 완성하고, 더 나아가 회화를 명상과 사색의 장으로 만들고자 함.

28)붓을 들고 거칠게 드쿠닝, 폴록 액션페인팅으로써 작가 자신의 자아와의 싸움. 자신을 드려냄.

격렬한 작가의 고민, 작가와의 투쟁 보임. But 색면회화는 관람자에게 명상 요구.

30)마크 로스코 <주황과 노랑> 1956 // 러시아 태생 유대인. 열살 때 미국으로 이주. 추상주의 작가 대부분 공통점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관심을 가짐. 이 이야기에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프로이드와 융의 영향을 받으면서 50년대 들어가면서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됨.

캔버스를 바라보면서 명상과 사색 요구. 평평한 표면에 명상과 사색의 장으로서 여러분 앞에 이 그림을 보여준다. 자신의 회화는 초월적 경험을 하기 위함이다. “초월적 경험” 로스코의 회화 키워드. 바넷 뉴먼의 키워드? “숭고”. 회화와 감정을 교류한다는 것은 신앙적 체험과 같은 것이다.

이 그림에 대해 ‘신성한 빛의 표현’이라 얘기함.

20c에 최초의 미술 운동을 한 마티스에 영향 받음.

마티스 <모자를 쓴 여자> - 강렬한 원색 사용. 둘 다 한정된 몇 가지 색으로서 색채를 보여줌. 색채가 형태가 되고 형태가 색채가 되는 것은 마티스가 선구자. 색채로서 형태를 만드는 거다. 차이점 : 마티스 구성, 로스코 추상.

냉온대비법 (어두운 곳은 초록, 밝은 곳은 따뜻한 색). 색채 순수해졌고 색채의 존재를 보여줌. 붓질의 자발성. 경쾌한 느낌. 빛을 명암법이 아닌 냉온대비법으로 해서 빛을 표현. 그럼으로써 강렬한 원색이 두드러짐. 명암법이 아니므로, 평면성을 유지하려 한다. (완전한 평면성x). 마티스는 물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빛을 물감의 색채로서 창조하려고 했던 사람. 🡪물감의 실제(물질성)를 보여줌. 물감으로 빛을 포착. //여기까지 마티스

로스코 역시 빛을 포착하려 함. 물감은 단순히 물질적인 색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가는 또 다른 그 어떤 것이다. 정신성을 추구. 관람자와 회화가 감정을 교류하는 것은 신앙적 체험과 같은 것이다. 신적인 것에 가까이 갈수록 실재에서 멀어지고 정신만 남게 됨. 최대한 신적인 것으로 가까이 간 것. 회화 그 자체가 빛이 되고 종교성을 갖는다. 명상을 요구하고, ‘생(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요구. 그림을 본다는 것은 장식적인 것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색과 명상의 장이다.

🡪로스코는 자신의 회화를 ‘‘초월적 경험’을 느끼게 함’이라 얘기함.

고갱 – 색채 문제에 대해 숙제를 던짐. 색채가 대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한다. (색채의 자율성 보여줌).

고갱의 영향을 받은 마티스 20세기 초에 냉온대비법 사용. 색채가 무한히 자유롭다는 것을 훨씬 더 순수조형적인 측면에서 발전시키고 있음. 색채 그 자체 보여줌.

20c 중엽에 고갱과 마티스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미술가들 ->색면주의 화가. 색채 그 자체

그림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추상이다.(고갱) 색채는 바로 형태가 되고, 물감으로서의 색채의 물질성을 강하게 보여줌.(마티스) 색채의 물질성을 넘어서 색채를 통한 정신성에까지 도달.(로스코)

터너 <노예선> , 마크 로스코 <no.8>//

초월적인 경험을 하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뇌와 불안. 고통. 로스코는 불안이 더 많았던 사람. 빛을 포착하는 것에는 터너와 비교. 로스코는 그 것을 빛이 갖는 정체성에 주목. 색채를 통한 빛의 형이상학. 종교적 신비를 표현하려 함.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 1669 //바로크 양식. 아버지가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 하는 부분. 빛이 들어와서 주변을 캄캄하게 하고 위의 부분만 빛이 퍼져나가는 느낌? 신비스러운 분위기. 굉장히 종교적인 아버지의 심정. 집나간 아들이 돌아오니 기뻐서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 느끼게 함. 17c 최고의 종교화가. 종교적인 신비, 정신성을 빛으로서 표현. 이와 같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로스코를 렘브란트와 비교.

렘브란트 터너 고갱 마티스 가 있었기에 색면화가도 있었다..?

30) 회색이라는 물감에 물질성을 넘어서 또 다른 실제. 정신성을 향해서 가는 빛이다.

31) 마크 로스코 <무제>, 마크 로스코 <무제> // 말년에는 어두운 색채. 정신적으로 불안. 후에 자살로서 생을 마감.

바넷 뉴먼과 로스코 절친. 거의 동일한 회화 이론 가짐.

32) 바넷 뉴먼 / 바넷 뉴먼과 베티 파슨스 // 하나하나를 보기 보다는 둘러 쌓여서 본다. 뉴먼은 일제곱센치의 블루보다 일

대형작품 제작할 때, 화가가 그 그림 속에 담긴다. - 로스코 . 관람자도 담긴다. 저절로 명상을 요구 받을 수 밖에 없다.

33) 바넷 뉴먼, <영웅적인 숭고를 향하여> / 바넷 뉴먼 <누가 빨강, 노랑, 파랑을 두려워하랴> // 단일한 색면. 숭고. 영웅성. 신성함이 더 강조.->이 거대한 색면을 보면서 숭고를 느껴라. 숭고 영원성 신성함이 특징. 좀 더 긍적적. 제목부터.. ㅎ 색채의 존재는 숭고, 영웅성 얘기하면서 정신성으로, 형이상학적인 사유 요구.

로스코 그림은 반투명하면서 선도 흐릿. 초월적 경험. 불안, 비극이 조금 더 강조. 좀 더 비관적.

바넷 뉴먼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심.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 영향을 많이 받음. 창조를 위해선 고뇌가 필요하고, 고뇌는 비극이다. 있어야만 되는 고통이다. 자신의 회화에서 관람자에게 요구. 이 색면 회화를 그냥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까 숭고의 느낌을 가져라. 그렇게 해야 창조의 고통, 비극을 느끼고, 건강하게 새로운 것을 탄생 시키자. 신화와 미술과의 관계 강조. 인디언 미술에서 명상과 관조의 힘을 발견.

🡪니체의 비극의 탄생, 유대교, 인디언 부족의 문화 영향 미침

마티스 <적색의 조화> 1908-09 // 바넷 뉴먼도 마티스의 영향 받음. 붉은색의 강렬한 원색 보여줌. 원근법이 거의 무시되면서 색채 그 자체 보여줌.

뉴먼 <누가 빨강, s랑, 파랑을 두려워하랴> 1969-70 // 색채 그 자체의 물질성에서 그 너머로 색채의 존재를 통해 숭고의 감정까지 끌어냄.

고갱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1897 //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 구상으로서 상징적으로 표현.

뉴먼 <영웅적인 숭고를 향하여> 뉴먼은 색채의 존재로서, 색채 너머의 그 어떤 정신성으로 여러분에게 명상 요구.

바넷 뉴먼 <십자가의 길 14처 중 제 3처> 1960 // 종교적인 것 까지 도달.

🡪바넷 뉴먼과 마크 로스코는 회화를 종교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람

**ZIP**의 탄생과 의미

1) 초기에는 기하학적 직선이 아니었다.

1) 수직의 띠는 남성적인 요소를 의미 / 여백은 여성을 상징.

2) 수직의 띠는 신비의 세계 창조. 유대교의 신비주의

A)아담에게 숨을 불어넣는 전능한 신의 몸짓

B)’빛이 있으라’-천지창조

인간이 최초로 한 것이 선을 긋는 것.

C)수직은 인간의 직립보행을 의미

인간으로서 인정받는 행위(인간의 시작)

숭고 – 높이의 숭고, 종교와 같은

* 거룩하고 고통스러운 경외의 감정
* 창조의 숭고

숭고의 개념을 가장 형태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수직의 띠, zip이다.

Zip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숭고의 개념 보여주기 위함.

바넷 뉴먼 <십자가의 길 14처 중 제 3처> 1960 // 수직의 띠가 평평한 표면이다. 평면성 강조. 또한 반복적인 리듬 보여줌.

**ZIP**의 조형성

1) 평면성

2) 반복적 리듬 – 공간을 연결하기도, 공간을 분리시키기도 함

3) 무한한 공간의 확장 – 올오버(All over) 공간

공간의 무한한 확장 보여줌. 🡪한국어로 전면·균질회화

1970년에 로스코가 자살하고, 6개월 후에 바넷 뉴먼도 사망.

34) 에드 라인하르트 <추상화> / 에드 라인하르트 <추상화> // 불교의 영향. 검정을 가장 금욕적이고 순수한, 빛의 색채, 검정이야말로 빛을 담는 용기라 생각. 색면 회화를 통해서 정신성 추구.

35) 로버트 마더웰 <스페인 공화국의 비가> 1953-54 / 마더웰 <스페인 공화국의 비가> 1953-54 // 스페인 정치상황 그림으로 표현. 그 당시 스페인이 군사 독재 있었음. 자유를 상징하는 그림 그림..? 색면 회화와 액션 페인팅 결합.

마더웰 – 콜럼비아 대학에서 미술사, 철학을 공부

초현실주의와 큐비즘의 영향.

1948년부터 뉴먼과 로스코와 함께 평면회화 작업.

1948년부터 20여년동안 스페인 정치 상황을 그림.

36) 고트리에브 <폭발> 1958 / 클레 <아직도 제자리에 있는 검정> 1940 / 고트리에브 <샤인> 1962 // 색면주의와 액션페인팅 완전히 구분된다기 보다 결합된 경향.

50년대 완성했다가 60년대쯤 소강상태. 새로운 젊은 세대 등장.-->후기 색면회화

후기 색면회화(Post Color Field Painting)

37) 헬렌 프랑켄탈러 <엷은 자주색 구역> 1966 / 헬렌 프랑켄탈러 <엘버타> 1975 //

후기 색면 추상은 1964년에 la에서 카운티 미술관에서 시작. 이 전시회는 그린버그가 기획.

헬렌, 켈리, 놀랜드, 스텔라 – 후기 추상표현주의 (2세대) 🡪계승 x. 정신은 있지만 독창적인 색면추상을 보여줌.

첫째, 완전 평면성. 어떠한 깊이도 용납하지 않는다.

둘째, 물감은 캔버스 표면과 완전히 일치가 되어야 한다.

회화의 조건인 캔버스의 표면과 물감. 그 물질성만을 추구. 색면주의보다 유사하지만 차이점 :

정신성 너무 강조. 물질성이 조금 약해져 버림. 형이상학적인 사유를 강조했기 때문.

후기 색면회화 작가들은 보다 물질성에 강조.